

# 공학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비판적 사고 교육: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함종호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Engineering Students: Focusing on Critical Writing about the Film “Bowling for Columbine”

Ham, Jong-ho

Instruct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critical writing can be a positive stimulus factor for the cultivation of critical thinking through actual cases of writing education targeting engineering students in universities. Critical writing education is a very important way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necessary for acquiring scientific knowledge, sharing social values, creativity and cultivating new production capacity. Especially, when critical writing education is performed with materials that maintain critical view of social reality such as the movie "Bowling for Columbine",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naturally combined with the dimension of engineering ethics faced by engineers from the analysis and judgment of social reality. This is an example of the fact that critical thinking education for engineering students does not necessarily meet their major areas.

**Keywords:** Engineer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Difference, Analysis, Critical writing, Engineering ethics

### 1. 공학도의 기본 자질과 비판적 사고

일반적으로 공학도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곤 한다(김도연 2004, 27). 이와 같은 정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① ‘과학 지식’, ②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③ ‘제품 생산’ 등의 요소이다. 이 가운데 공학도에게 요구되는 ‘과학 지식’이란, 자연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결과를 뜻한다. 이는 선형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논리적 사고 과정에 토대를 둔 관찰 및 실험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공학도는 무엇보다 논리적 사고 과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려

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과학 발전과 이로 인해 야기된 산업 발달은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공학도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사회 공동의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용성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사회 공동의 가치를 위해하는 문제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사회의 공동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인 것이다.

아울러 공학도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중요 사항, 즉 ‘제품 생산’의 측면 또한 사회의 공동 가치를 추구하고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공동의 가치 추구는 부의 창출에 있으며, 이때 요구되는 효용성은 무엇보다 소비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생산-소비 메커니즘을 원활히 작동시켜나갈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만약 생산-소비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Received December 10, 2020; Revised January 20, 2021

Accepted January 20, 2021

† Corresponding Author: space3551@uos.ac.kr

©2021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또한 공학도에게 필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보드리아르(1991, 59)에 의하면, “모든 사회는 사회적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냄으로써, 현대 소비 중심 사회를 구성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화의 모습을 그는 복합기능 상품을 일컫는 ‘가젯’(gadget)에서 찾는다. 가젯은 기존의 재화에 다른 기능을 덧붙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낸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움은 ‘더하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령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의 발달 과정을 예로 들어 보자. 휴대폰의 본질적 기능, 즉 통화의 기능은 오늘날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전의 개인용 휴대전화가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통화 기능보다 오히려 인터넷 접속, 사진 촬영 및 전송, 게임 기능 등의 부가 기능들이 덧붙여짐으로써 휴대폰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중심 가치인 부를 창출하고 생산-소비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재화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이들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하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사항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공학도에게 요구되는 바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식의 지극히 막연하면서도 추상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화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능을 덧붙여 기존의 것과 다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요구되는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즉, 창의성이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인식과는 별개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차이에 의해 새로움이 생성될 수 있음을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 창의성 개발을 위한 비판적 글쓰기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학도에게 요구되는 요소는 첫째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사회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셋째 차이를 통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공학도들에 대한 대학에서의 교육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글쓰기를 통한 비판적 사고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비판적(critical)’이란 용어는 ‘분별하다’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kriticos’와 ‘판단/결정하다’는 의미를 지닌 ‘krineion’, 그리고 ‘판단의 수단’의 의미를 지닌 ‘kriterion’ 등에서 유래했다(박휴용 2018, 57). 어원을 고려할 때 비판적 사고는 특정 사

고 기준(수단)에 의해 행하는 분별 있는 판단 능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지식과 같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최훈 2012, 172). 이처럼 공학도에게 요구되는 ‘과학 지식’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둘 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민규(2010, 130)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란 사고의 논리성과 판단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사고의 방법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사고 주체 자신이지만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사고 주체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는 “자신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판단을 함으로써 상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김남미 2012, 134)과 깊은 연관이 있다. 더욱이 비판적 사고는 사회적인 규범과 그 책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공학윤리의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공학윤리는 공학 관련 전문가가 직업적 판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가치 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용되는 판단 규범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학윤리 교육의 목표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판단 혹은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에 놓인다(김진형 2010, 198). 공학윤리에 내재된 기준과 판단의 요소 또한 비판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공학도들에게 요구되는 사회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에 비판적 사고가 그 바탕에 놓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철학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Delphi Report의 내용을 토대로 하병학(2005, 50)이 내린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근거로서 개념적, 방법론적, 준거적, 또는 맥락적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 등으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비판적 사고란 합리적인 판단 근거들(개념적, 방법론적, 준거적, 또는 맥락적 측면들을 고려한)을 통해 도출된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이때 내리진 일련의 비판적 사고는 수행자 자신이 내린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라

## III. 영화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교육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신세대는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친화성이 매우 높다. 뉴미디어 매체의 기본 특성은 복합적인 기능 수행이 한자리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령 텔레비전 매체의

경우, 과거 영상 보기의 기능만을 수행했다면 오늘날 그것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어 영상 보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의 확대 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의 시각적인 측면에의 강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글쓰기 교육의 제재로 영화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강조되는 시각성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비판적 글쓰기 교육의 제재로 영화를 활용하는 것 또한 텍스트 내 정보가 시각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더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은 제5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볼링 포 콜럼바인》이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링 포 콜럼바인》이 가지고 있는 빠른 서사 전개와 극영화 못지않은 극적인 구성 방식은 관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 영화가 특히 비판적 글쓰기의 주요 제재로 적당한 이유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독특한 비판적 시각 때문이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 영화가 지닌 독특한 비판적 시각은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변형을 편집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서현석 2004, 407). 이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에서조차도 감독(관찰자)의 참여적인 특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독(관찰자)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비판적인 시각은 이 영화가 미국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조롱에 있다. 미국 사회는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방식으로 특권층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꾀한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총기 사고와 같은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링 포 콜럼바인》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 내포된 비판적 시각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사실에 기초한 담론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객관적인 근거들의 배열과 배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인식과 해석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영화 내 시퀀스를 세분화시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총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
- 2) 콜럼바인 사건 장소인 리틀턴 지역의 이면
- 3) 콜럼바인 사건의 재연과 이후 강화된 학생 규제로 인한

폐해

- 4) 미국의 총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하위문화에 대한 언론 공격
- 5) 미국 내 총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 6) 캐나다의 총기 취급 실정
- 7) 미시건 주 뷰엘 초등학교 내 최연소 총기 사고와 그 원인
- 8) 콜럼바인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K마트 총알 판매 금지 요청(해결 방안 모색 및 실천의 측면)
- 9) 전미총기협회장인 찰튼 헤스턴과의 인터뷰

1)에서부터 9)에 이르는 《볼링 포 콜럼바인》의 내용 전개 과정을 통해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대중적으로 널리 전파된 공포심 조장 방식이 어떻게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비교·대조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구성함으로써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시퀀스에서 활용된 비교·대조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영화의 두 번째 시퀀스는 콜로라도 리틀턴 지역 주민의 인터뷰와 경제 개발 선전 비디오 영상으로 시작된다. 위 인터뷰와 비디오를 통해 보이는 리틀턴은 따뜻한 기후와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애가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묘사된다. 이후 이어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 가정에 설치된 방범창과 도어락, 안전 대피소 등이 강조되면서 이 지역의 안전성이 다시 부각되지만 이내 부동산 중개업자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 이 지역 내 콜럼바인 고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불러일으킨 불안감이 대조적으로 비춰진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대 무기 제조 회사인 록히드 마틴사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록히드 마틴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회사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회사의 사회 공헌도에 대해 역설한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사 간부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무기에 대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후 영화는 미국이 저지른 대량 살상의 만행을 증빙하는 자료화면을 배치시킴으로써 록히드 마틴사가 만들어낸 무기들이 실제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사용되는 배경 음악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이다.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감미로운 선율과 아름다운 노랫말은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면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극대화된 아이러니 상황이 전달된다.

영화에서 비교·대조의 방식을 활용한 논거 제시 방법은 이후 유추의 방식을 통해 사고 확장을 전개시키기도 하며 이와 더불어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 제시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양상은 일곱 번째 시퀀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곱 번째 시퀀스에서는 뷰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최연소 총기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 보도진들의 태도를 통해 이미 일상화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총기 관련 사건이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도록 한 문제 원인은 희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볼링 포 콜럼바인》이 진단 내리고 있는 뷰엘 초등학교 최연소 총기 사건의 원인은 정부의 복지 정책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벌어서 갚아야 하는 미국의 정부 복지 정책은 빈곤층 부모가 아이를 돌볼 여유를 잃게 만들고 이것이 급기야 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 이 영화가 행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복지 정책 강화, 둘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쥐서는 안 된다는 점, 셋째 찰턴 헤스턴과 같은 공포심 조성의 일원들의 책임 있는 사과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볼링 포 콜럼바인》은 비판적 사고가 전면적으로 깔려 있는 영화라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전개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전형적인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 이는 비교·대조의 방식을 통한 논거 구성,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과정으로 압축된다. 영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 이와 관련한 비판적 글쓰기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비판적 글쓰기 교육의 실제

《볼링 포 콜럼바인》을 텍스트로 한 비판적 글쓰기 교육은 내용 분석, 주제 선정, 논거 제시의 적절성 확인 및 비판적 글쓰기 작성 등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였다.

##### 1. 내용 분석

《볼링 포 콜럼바인》을 가지고 비판적 글쓰기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함의를 현실 세계에 다양하게 접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물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드러난 미국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맞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포심이나 두려움 조장 방식을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지배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일조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 영화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다. 또한 영화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세워볼 수 있다.
- ㉢ 미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총기 관련 사건은 곧 폭력성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기를 통한 폭력성 대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폭력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적인 현상들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기 위해 그 이유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 어떤 사회(현상)이든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중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왜 이와 같은 이중성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 미국 내 총기 소유가 개개인 이 지닌 자유 의지의 발로라 할 때, 개개인의 자유 의지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제반 분야와 요소, 가령 매스 미디어의 보도 형태, 복지 정책, 교육문제 등의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 ㉦ 지금까지 전개시켜 나간 생각들을 종합하여, 과연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인지 진단해볼 수 있다.

㉡~㉦의 내용을 질문의 방식으로 바뀐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한다.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판단을 위해 모듈별 토론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모듈별 토론의 경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보도록 하고 되도록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2. 주제 선정

영화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다면 영화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까지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특정 주제를 선정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제는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를 일반적인 방향에서 결정하게 되면 비판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논거 제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적 사고에서 요구되는 새로움의 측면, 즉 차이의 요소는 무엇이 다른가를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

하면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봄으로써 텍스트와 자신의 생각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 영화 텍스트 자체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해석 등을 수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령 《볼링 포 콜럼바인》의 경우 마이클 무어가 행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글쓴이 나름의 판단이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포심 조장 방식의 문제를 미국 사회가 아닌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았을 때 어디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들 내용은 앞서 소개된 텍스트 내용 분석 과정, 즉 ㉓~㉕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고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제가 선정되었다면, 그다음으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명료하게 세운다. 이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에 논리적인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맹목적으로 취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견해를 견지한 상태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논거 제시의 적절성 확인 및 비판적 글쓰기 작성

다음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비판적 글쓰기를 작성하도록 한다. 먼저 반드시 텍스트인 영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과 견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득력 있게 밝히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명증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독자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줄거리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글쓴이 자신의 사고 안에서 재구성된 논증 과정을 따라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주제에 집중하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장황하게 기술하지 않도록 한다.

논거 제시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감상이나 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이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전문적인 의견은 글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설득력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영화 텍스트가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가 수행되는 방식은 먼저 영화 텍스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화 내 시퀀스를 세분화시켜 분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영화에서 동원된 설명 방식과 제시된 근거들을 요약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선 III장에서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글의 전체 구성은 3단 구성 방식(서론, 본론, 결론)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주의환기력이 높은 서론을 구성하고, 본론에서는 영화에서 제기한 문제의식만을 반복해서 기술하는 것보다 영화 내용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주장과 논거가 반드시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영화 내용에 대한 상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자신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론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와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한다. 글의 유기성과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영화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결과들의 일부이다.

#### <사례 1>

또 다른 예로는 신종 플루 때의 언론 보도이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 사망자가 많다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신종 플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 거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했고 국민들은 집에서 두려움에 떨고 지냈다. 하지만 실제 신종 플루 사망률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감기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일반 감기보다도 사망률이 낮은 신종 플루 사망자들을 언론들은 한 명씩 보도해 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 <사례 2>

분명 요즘 들어 성폭행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성폭행 사건의 수는 과거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 성폭행 수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행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언론이 과대포장하고 있는 않은가 하고 생각해 본다. 실제로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 봐도 밤 길 무서워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장한 남성들은 모두 TV에 나오는 성폭행들처럼 자신의 욕구마저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 성폭행 같은 사건들은 굉장히 질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보도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들도 어느 정도 언론이 공포심을 조장하여 여성들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공포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1>과 <사례 2>은 신종플루와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볼링 포 콜럼바인》에서 제기한 공포심 조장 방식을 한국 사회에 적용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텍스트 내용을 단순히 적용하여 비슷한 사례들을 유추해내었을 뿐 이와 관련된 문제 원인과 해결책 제시의 방향으로 글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텍스트 내용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모색해보고자 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논거 제시가 뒤따르지 않아 완성도 높은 글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판적 글쓰기 교육의 자리에서 학습자와 함께 공유할 때 문제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3〉

과거 우리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다. 과거 군부독재로 대표되는 정부는 위협적인 적으로 북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시킴으로써 체제 안정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심 조장의 이면에는 체제 안정의 측면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억압하였으며, 그 반대편에서는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의 모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례 1〉, 〈사례 2〉에 비해 〈사례 3〉은 공포심 조장의 한 방식을 효과적으로 진단해냈으며, 이러한 공포심 조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문제 원인 즉,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 추구의 측면까지도 심층적인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판적 글쓰기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주장 및 평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 구성의 차원이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사례 2〉처럼 문제적 상황에 대한 단순한 사실 확인과 이로부터 유추되는 비슷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예시를 나열하는 서술 태도는 비판적 글쓰기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사례 3〉처럼 분석 및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논거화시켜 제시하는 글쓰기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비판적 글쓰기 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례 4〉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에서 보여주는 미국 사회 내 총기 난사 사건이 이 점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는 과학과 산업의 부정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훼손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윤리적 관념과 산업 발달에 의해

만들어진 재화(무기를 포함한)에 대해 사회적 규제와 통제가 가해지지 않을 때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철저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산업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례 5〉

무기는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무기와 같은 재화로 인해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면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 무기를 만든 생산자인가, 아니면 이를 오용한 소비자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재화는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에서는 총이 발사되어야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총이 발사되면 안 된다는 사고와 판단을 총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화를 사용하는 모든 상황에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행위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과 결정은 모두 한 개인의 몫일까.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인 한 개인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무기와 같은 재화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사건의 책임은 재화 그 자체에도, 재화를 만든 생산자나 소비자에게도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재화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행해지지 않은 그 사회에, 재화를 만든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지 못한 사회에게 있는 것이다.

〈사례 4〉는 과학 및 산업 발달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사례 5〉는 재화를 둘러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경우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학도라는 점에서 이는 공학윤리의 차원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비판적 글쓰기의 제재인 영화가 사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대하고 있는 공학도들은 스스로 비판적 사고에 전제된 반성적인 자세와 자기 규제적인 태도를 통해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의 공동 가치 실현의 차원으로까지 사고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판적 글쓰기 교육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함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의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글쓴이의 창의적인 사고 확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의 창의적인 사고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차이의 영역에 대한 강조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 내

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문제 확인과 원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철저히 수행해나감으로써 좀 더 정교한 방식의 비판적 글쓰기 수업 모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 V. 맺음말

본 논문은 대학 내 공학도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의 실제 사례를 통해 비판적 글쓰기가 비판적 사고 함양에 긍정적인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판적 글쓰기 교육은 공학도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학 지식 획득에 필요한 논리성, 사회 공동의 가치 공유, 창의성 및 새로운 재화 생산 능력 함양 등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방식인 것이다. 특히 영화 《블링 포 콜럼바인》과 같이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제재를 가지고 비판적 글쓰기 교육이 수행될 경우 이것이 사회 현실에 대한 분석 및 판단에서 더 나아가 공학도들이 직면한 공학윤리의 차원과 자연스레 접목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학도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굳이 그들의 전공 영역과 부합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오늘날의 공학도들은 자신의 전공 영역에 사고의 전 과정을 몰입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문 소양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으며,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 또한 매우 협소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판적 사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비교·분석의 사고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글쓰기의 교육 도구로 영화 《블링 포 콜럼바인》을 활용하였다. 이 영화는 현실 사회를 냉철하게 비판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이면서, 그 내용 전개 과정이 글쓰기의 기본적인 구성 단계(서론, 본론, 결론)에 비추어볼 때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비판적

글쓰기의 교육 도구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더욱이 오늘날의 학습자에게 보다 친숙한 미디어 매체를 교육 도구로 삼는 것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김남미(2012). 비판적 사고 능력 확장을 위한 글쓰기 교수 방안. *리터러시연구*, 5, 133-166.
2. 김도연(2004). *우리 시대 기술 혁명*. 생각의나무.
3. 김주연(2006). 종합적인 사고 행위로서의 창의적인 글쓰기 방법 시론: 대학에서의 실제 글쓰기 교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회론과 비평*, 31, 81-105.
4. 김진형(2010). 공학윤리에서의 논증 이해와 그 적용. *철학탐구*, 27, 195-224.
5. 박휴용(2018). 비판적 사고의 기본 원리, 성격, 그리고 대안적 이론에 대한 인식론적 재고찰. *교육사상연구*, 32(2), 55-84.
6. 보드리야르, J.(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7. 서민규(2010). 비판적 사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교육연구*, 4(2), 129-139.
8. 서현석(2004). '진실'의 끔찍한 무게: 마이클 무어와 다큐멘터리의 유동성. *한국언론학보*, 48(6), 397-423.
9. 최훈(2012). 쿤, 과학 교육, 비판적 사고. *철학탐구*, 32, 171-195.
10. 하병학(2005). 기초학문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개선 방향:비판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38, 47-69.



**함종호 (Ham, Jong-ho)**

1997년: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3년: 동 대학원 문학 석사

2009년: 동 대학원 문학 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현대시 이미지 구성 원리, 영화 구조 및 작

품론, 글쓰기 교육

E-mail: space3551@uos.ac.kr